

# ‘바다에서 희망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12~15일 군산시 개최  
철인3종 · 바다수영  
해양스포츠체험 등 진행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포스터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군산시 비응항 일대에서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군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바다에서 희망을! 군산에서 미래를!’을 슬로건으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및 군산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한국해양소년단이 주관하는 전국 최대 해양스포츠 축제다. 철인3종경기와 요트 대회가 첫날인 12일부터 경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15일까지 비응도 해수욕장 일원에서는 수영·핀수영, 철인3종경기, 바다수영, 한국해양소년단 주관의 해양어드벤처, 등력·무동력 해양스포츠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오토캠

핑장(아미도)에서는 요트와 비치발리볼, 은파호수공원(제1주차장)에서는 카누와 체험행사가, 금강하구둑 일원에서는 조정 경기가 진행된다. 또한 공식행사장인 비응항 특설무대 일원에서는 다양한 공예체험과 특산물 판매, 지역홍보관들이 운영되며 12일 오후 6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7시부터는 주제공연, 대회기 입장식 선수·심판대표 선서 등 개회식이 진행된다. 개회식 종료 후에는 ‘여름밤의 열기’라는 주제로 가수 ‘노라조’, ‘독비’, ‘최성수’, 마지막으로 ‘정윤정’의 화려한 축하공연을 끝으로 개회식이 종료된다. 폐회식은 제전의 마지막날인 15일 오후 5시 비응공원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며 폐회식에 뒤이어 트로트계의 신성 가수 최대성, ‘요요미’의 축하공연으로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막을 내리게 된다. 시와 경기주관단체들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공식행사장 및 경기장 종합 안내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접촉결제, 자가진단키트 등을 비치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부스 및 화장실 등 수시로 방역·소독에 정이다. 또한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시 각 경기장에 설치된 임시대기소로 이동해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대응조치를 진행하는 등 방역대응에도 만반의 준비를 실시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제전을 준비했다. 제전의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홈페이지(www.gunsanmsg.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063-465-99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근기자



11일 전북교육청을 찾은 조세혁 선수(가거석 전북교육감,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 김우연 전북테니스협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그동안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

임블던 U-14 단식 우승 조세혁, 전북교육청 찾아서 교육감과 면담  
서 교육감 “학교체육 위상 높여줘...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토록 지원”

서거석 교육감이 테니스 유망주 조세혁 선수의 성과를 축하하며, 꽃다발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임블던 U14 남자 단식 초대 챔피언인 조세혁 선수는 11일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 김우연 전북테니스협회장, 조성규 전북테니스협회 전무이사(조세혁 아버지), 권영선 전일중 교장과 함께 전북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감을 면담했다. 전주 금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일중학교에 진학해 현재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혁 선수는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영국 임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7월 17일과 30일(현지시간) 프랑스와 독일 유렵투어링팀 일정에 포함된 프랑스 루아르아틀란틱 대회와 14세 이하 국제 독일 테

니스 선수권대회에서도 남자 단식 우승을 하면서 전북도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다. 조세혁 선수가 이 같은 성과를 내기까지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었다. 특히 훈련비·용품비·장비비 등 특별훈련비를 적극 지원해 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전라북도 학교체육의 위상을 높여줬다”면서 “체육영재 육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학생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혁 선수는 “그동안 응원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내년에는 주니어 그랜드슬램을 뛰는 것이 목표고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황파르’ ... 16일까지

겨루기 · 품새 · 격파 등 펼쳐

제20회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가 11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열린다. 개회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남천현 총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 오승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강동화·윤수봉 전북도의원,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재천·성중기 완주군의원, 이명철 대학태권도연맹 회장, 이동섭 전 국가원장, 고봉수 전북 태권도협회장,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 이석훈 완주군태권도협회장, 선수단과 심판단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 대회는 겨루기와 품새, 격파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펼쳐진다. 11일부터 3일 간 진행되는 겨루기 부문에는 641명의 선수가 출전,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14일 열리는 격파 부문은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51명이 출전해 체급·도약 격파와 수직축 회전 격파, 수평축 회전 격파 등의 기술을 선보인다. 15일부터 2일 간 열리는 품새 부문은 개인전(남녀 각 16개부)과 복식전(혼성 5개부), 단체전(남녀 각 5개부)에 1,122명이 출전한다. 한편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는 지난 2008년 대한태권도협회 공인 품새 대회로



제20회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가 11일 개막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격파 시범을 보이고 있다.

시작해 2015년 겨루기 대회를 추가하면서 품새·겨루기·격파 등이 망라된 종합대회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남천현 총장은 대회를 통해 “이 자리에 오

기까지 흘린 땀방울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불굴의 의지를 불태워 주길 바란다”며 “자신의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 한국, 8전 전승으로 세계청소년여자핸드볼 우승

덴마크와 결승전서 31-28로 이겨

한국 청소년(U-18) 여자핸드볼이 덴마크를 꺾고 세계선수권대회를 제패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진순(인천해운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1일(한국시간) 북마케도니아 스키페에서 열린 제8회 세계청소년여자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덴마크를 31-28로 꺾었다. 18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유럽 팀들을 상대로 8전 전승을 거둔 한국은 비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세계청소년여자선수권 정상에 섰다. /뉴시스

이 대회에서 비유럽 국가가 4강에 든 것도 2006년 준우승, 2018년과 2018년 3위를 차지한 한국 뿐이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4년 20세 이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8년 만이다. 득점과 어시스트 부문에서 모두 2위에 오른 김민서는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이해원이 라이트백, 차서연이 라이트윙 포지션에서 대회 베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팀은 13일 오후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금의환향한다. /뉴시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